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 9월 2일 '팡파르'

4일까지 50여 개 공연팀 초청...탈놀이·마당극·서커스 등 볼거리 풍성
킬러콘텐츠 '로컬스토리 5선' 기대...3년만의 거리 축제 원도심 활성화

제22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하 미마프 MIMAF)이 '신명난 마당에서 놀자!'란 슬로건으로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목포 원도심 수문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극단 갯돌(대표 문관수)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 순수 민간예술축제이다.

축제가 열리는 원도심 '수문로'는 80년대 목포 변화의 상징이다. 축제는 공식행사인 개.폐막 놀이를 비롯해 국내 초청작, 목포 로컬스토리 5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특히 3년 만에 거리로 돌아온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대거 유입돼 목포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할 '개막 놀이'는 수문로 거리에서 신나는 댄스를 즐기는 메가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목포 지역 9곳의 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시민과 난타연합, 풍물패 연합 시민이 참가해 풍물 난타와 댄스로 화려한 개막을 연다. 목포의 명물 거대 인형 육단어와 근대거대인형 4인방도 가세해 볼거리를 선사한다.

총 50여 팀이 넘는 공연단이 초청된 미마프 축제는 탈놀이, 마당극, 서커스, 미술, 콘서트, 인형극, 댄스 등 볼거리가 다채롭다.

고성오광대보존회, 극단 자갈치, 천하제일탈공작소, 환술극단 담, 안해본소리 프로젝트, 떼레게 등이 초청돼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예향남도 초청작에는 광주 히비스 밴드, 광양 버꾸놀이, 여수 김길선류 북놀이협회, 진도 강은영 명인, 영암 기예무단, 목포의 리아댄스컴퍼니 등의 공연으로 함께 한다.

'목포 로컬스토리 5선'은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킬러콘텐츠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목포 원도심의 특별한 공간을 선정, 여행자들에게 로컬 체험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0년 전 목포의 물 사정을 스토리로 엮은 투어 프로그램 '물을 찾아서', 1924년 목포청년회관을 스토리화 한 시민영화 '청년회관', 유달산 노을 풍경을 감상하는 수문로 루프탑 콘서트, 8개 팀의 가족이 열띤 경연을 하게 될 '가족 그림자극 경연대회', 뮤지컬 배우 하진솔이 여행자와 함께 목원동을 돌면서 근대가요 콘서트를 갖는 '진솔이와'



지난 대회 때 열린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막놀이.

놀아요 동네 한 바퀴' 등이 펼쳐진다.

프린지 행사로는 수문로 아티스트들의 '목원상점 프리마켓', 수문로 상가에서 산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수문로 손맛페어', 한국의 버스킹 '굿편', 시민 배우들의 기록 '시민영화 메이킹 필름'을 유튜브 갯돌 TV에서 오픈한다.

주최 측 관계자는 "축제기간인 9월 2일부터 4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수문로 옛 신안군청 사거리부터 불종대 도로까지 부분 통제된다"면서 "이 구간을 지나는 일부 버스선도 우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김지하 문화제' 열린다

27일 김대중노벨상기념관서

김지하 시인이 세상을 떠난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김지하 문화제'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삼학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문화제는 목포김지하문화추진위원회, (재)아시아인문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김 시인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씻겨주는 씻김굿(송순단 진도씻김굿 무형문화재 조교)을 시작으로 대표 작품 낭송, 노래 공연, 임진택 명창의 창작판소리 공연 등으로 그의 인생을 회고한다.

이와 함께 고인과 인연이 있는 최태욱 의학박사 등이 참여해 김 시인의 삶과 문학, 목포 등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장 주변에는 시인의 어록, 김봉준 화가의 조각 작품 등이 전시돼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 시인은 고향 목포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마치고 가족과 함께 원주로 이사갔다. 목포는 그가 유소년기를 보낸 추억과 함께 시인의 감수성이 형성된 곳이자 문학의 뿌리가 자란 곳이다.

김 시인은 '오적(五賊)', '타는 목마름으로', '비어(蟬語)' 등과 같은 작품으로 엄혹한 1970년대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권력에 저항했다.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위선을 전통 판소리 가락에 맞춰 호통과 욕설을 섞어 조롱하고 신랄하게 비판해 억압받던 민중의 분노와 시름을 달래주는 등 민족 문학의 뜨거운 상징이 됐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 해변서 맨발 걷기·필라테스·명상 체험하세요

가을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
9월 16일~11월 12일 진행

완도 해변에서 필라테스, 명상, 노르딕 워킹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사진>

완도군은 9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가을, 파도와 행복'이라는 테마로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장기화된 코로나 19와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총 28회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월별로 다르게 구성된다.

9월에는 맨발로 해변가 모래 위를 걸으며 들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올바른 호흡과 확장된 이완법을 배워 폐 깊숙이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할 수 있는 해변 호흡과 소도구를 활용해 문진 근육을 풀어주고 재활을 돕는 필라테스가 진행된다. 10월에는 몸 안의 활성 산소를 배출해 주는 맨



발 걷기 어싱 명상, 바디 스트레칭 명상, 백색 소음인 파도 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내려놓는 멍 때리기 명상 등 자연과 하나 되는 오감 치유 명상을 할 계획이다.

11월에는 노르딕 폴(pole)을 활용해 몸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평소엔 잘 사용하지 않는 몸의 뒤

근육을 이용해 걷는 노르딕 워킹이 이루어진다.

'가을, 파도와 행복' 프로그램은 9월에는 16일과 17일, 10월은 14, 15일, 11월은 11일, 12일에 운영되며, 관광객 및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일정별로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정은주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2차 추경예산안 7795억 편성

1차 보다 962억 증가...농업인 경영 안정·현안사업 적극 지원

영암군이 7795억원 규모의 제2회 세입·세출 추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6833억원 대비 962억원(14.08%) 증가한 규모로 국가추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와 지역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 주로 편성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138억원 대비 914억원(14.89%) 증가한 7053억원, 공기입특별회계는 39억원(6.51%) 증가한 63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9억원(9.44%) 증가한 106억원을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편성했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1875억원(24.05%),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1510억원(19.37%), 환경분야 989억원(12.70%), 국토및 지역개발분야 815억원(10.46%) 순이다.

주요 예산은 비 경영안정대책비 27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39억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28억원, 농업용 면세구 구입비 27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14억원,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지원 11억원 등이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생활지원비 23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11억원을 반영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준비 부담과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을 지원하고,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추석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점검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와 위생 지도 단속이 나갔다.

진도군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운반업소 등 추석 제

수용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6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과 유통기간 준수 여부 등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포장처리업소의 거래내역

등 전산신고 이행, 이력번호 표시 사항 준수 여부, 수입산·국내산 원산지 문갑 판매, 작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위법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개선 사항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목포경찰, 이륜차·전동킥보드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목포경찰이 지난 22일 하당 주요 교차로 일대에서 이륜차(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PM)를 대상으로 광역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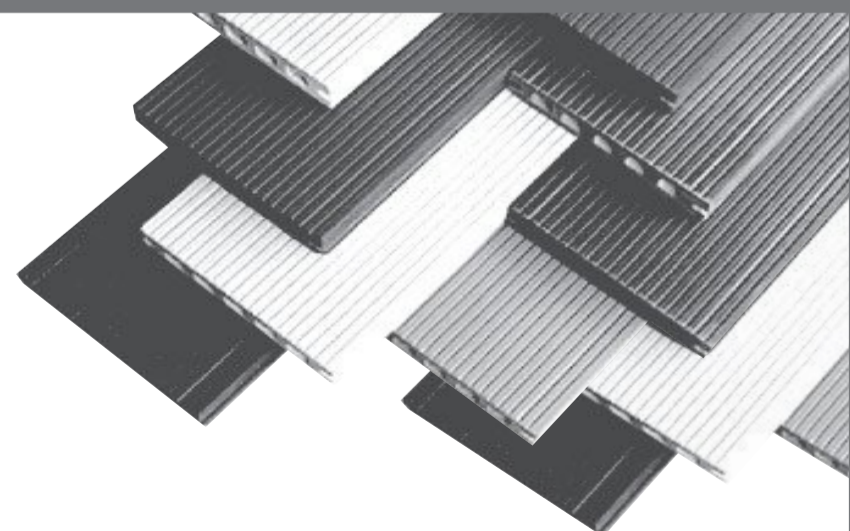
이번 단속은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무질서 행위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교통경찰·암행순찰·교통사이카 및 기동대 2개 대 등 약 12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하당 포르모 사거리부터 시너바슈즈 사

거리까지 옥암로·신흥로 주변의 8개 주요 교차로와 골목길을 원천 차단하고 이륜차와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및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교통 무질서 행위는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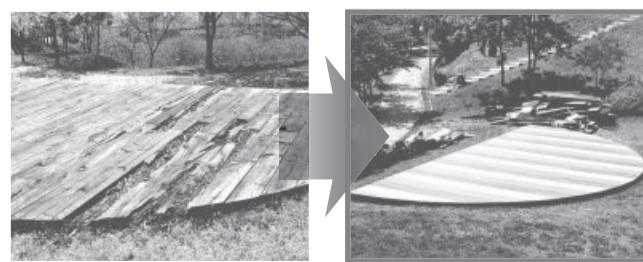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